

# 몽골 황제 順帝의 제주 피난궁전 터 탐색\*

김 일 우\*\*

## In search of the Refuge Palace Site for the Mongol Emperor, Sunje

Kim Il-woo\*\*

### Abstract

Around the year of 1704, Jeju Moksa(牧使), Song, Jeong-Kyu left behind records indicating that ‘Daegwolgi(大闕基)’ in Hongro-hyun, which corresponds to today’s ‘Palace Site’ in Gangjeong-Dong, was the ruins where construction work for a palace had been progressed for over two years from the reign of 15th year to 17th year of King Gongmin (1366~1368).

His position as the incumbent Jeju Moksa(牧使) is thought to lend credence to his statement about what had happened. Furthermore, today's findings from research on Jeju's history and archeology provide additional support for his view made about 300 years ago, that regarded the ruins of the 'Palace Site' in Gangjeong-Dong as the palace site for Emperor Sunje to take refuge in. As such, further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should follow for the ruins of the ‘Palace Site’ in Gangjeong-Dong.

With this, it is equally important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premise or domain of Temple Beophwasa, for, besides its being the palace site, it

---

\* 본 글은 2016년 3월 26일 한국몽골학회와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등의 주최로 열린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본 글은 필자의 연구물(2015, 「제주 江汀洞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 고려시대 몽골의 제주지배기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pp.135~168)을 본 학술대회의 취지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그 내용이 앞서의 연구물과 겹치는 곳도 적지 않은 편이다.

\*\* (사)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이사장(President, Jeju Research Institute Sharing History and Culture Corp)

seems that Dynasty Ming and Dynasty Koryo led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housing complex and houses within the precinct of this temple in the 1380s so that the refugees of Mongol royal coming into Jeju could reside and settle there. If the site for the refuge palace of the Mongol emperor Sunje can be confirmed as this place, this site will gain an international attention. Along with this, Jeju is likely to embrace the opportunity to gain a spotlight as the icon for interaction and encounter as well as one of the main places in the east asian culture zone.

Key words: 'Daegwolgi' in Hongro-hyun(홍로현 관내 '大闕基'), Overseas Travelogue (「海外聞見錄」), Jeju Moksa Song, Jeong-Kyu(제주목사 宋廷奎), 'Palace Site'('대궐터'), Gangjeong-Dong Palace Site(강정동 대궐터), Mongol Rule Period of Jeju(몽골의 제주지배기), Jeju's Southwestern Area(제주의 서남부 지역), Building Construction(조영공사), Refuge Palace Site of Emperor Sunje(순제의 피난궁전 터)

1. 머리말
2. 제주 지역의 '대궐터' 고증
3. 洪爐縣의 “大闕基”와 그 위치 비정
4. 홍로현 관내 “大闕基”의 역사적 고증
5. 맺음말

## 1. 머리말

몽골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順帝이다. 그는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중반에 걸쳐 역사상 가장 커다란 판도를 이루었던 몽골제국의 마지막 시기를 통치했거니와, 인생도 몽골제국의 멸망과 같이 마감했던 것이다. 순제 때 몽골제국은 중국대륙의 중원에서도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제주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고, 아니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곧, 황제 순제가 제주에 피난궁전 조영을 기획·추진해 나아갔던 것이다.

순제는 공민왕 15년(1366) 무렵부터 제주로 피난코자 궁전 조영을 계획·추진했고,<sup>1)</sup> 공사도 한창 행해지다가 몽골제국이 공민왕 17년(1368) 명에게 중원을 빼앗겨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준공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sup>2)</sup> 이때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조영은 2년 정도 걸쳐 추진되어 공사도 실제로 행해졌다. 그럼에도, 피난궁전 터가 어디였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의 법화사 일대였을 것이라는 논의도 있기는 하나, 베일에 싸여왔었다. 이러한 참에 최근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터를 적시하는 기록을 발굴해냈다.

宋廷奎가 쓴 『海外聞見錄』 수록의 16개 기사 가운데 맨 마지막의 「洪爐宮基」조를 보자면,<sup>3)</sup> 옛적 “洪爐縣” 관내 속칭 “大闕基”라 일컫는 곳이 순제의 피난궁전

1) 岡田英弘(1958), 「元の順帝と耽羅島」, 『アジア文化研究論叢』 1, 國際基督教大學, pp.58~59; 김일우(2000),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pp.359~367.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조영에 대한 논의는 岡田英弘이 1958년 위의 논문에서 시작한 이래, 김태능의 연구가 이루어졌다(1967), 「원순제의 피난궁전지와 백백태자의 묘」, 『제주도』 31, pp.178~183. 특히, 김태능의 경우는 피난궁전의 터를 법화사지 일대로 보았다. 이후 필자도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이 조영되던 시기의 고려와 원의 관계 및 제주사회의 동향 등을 위의 책에서 다각적으로 다룬 바 있다. 이어 필자가 앞의 논문(2015)에서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터를 비정하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밖에도 蔭木原洋(1998), 「洪武帝期の対外政策考—濟州島に焦点を当てて—」, 『東洋史訪』 41과 에르테니 바타르(2006, 「원 · 고려 지배세력 관계의 성격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및 전영준(2013, 「13~14세기 元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 변화」, 『제주도연구』 40)의 연구에서도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에 관한 논의가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2)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9월조.

순제의 제주궁전 조성은 국세의 하락에 따른 피란의 목적이 아니고, 원 황실 내부의 권력투쟁에 따른 염증 해소이거나, 혹은 전염병 발병으로부터의 탈출 등을 도모코자 제주 이주를 위해 추진되었다는 논의도 있다(윤은숙(2016), 「토곤 테무르 카안의 탐라 궁전」,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문, pp.181~195). 곧, 순제가 제주에 짓고자 했던 궁전을 “별궁”과 같은 존재로 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는 순제가 제주에 궁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제주에) 피난할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위의 『고려사』 기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이란 용어를 쓰고자 한다.

3) 『해외문견록』은 송정규가 숙종 30년(1704) 제주목사로 와 2년 동안 재직하면서 제주의 史蹟 등을 저술한 필사본이다. 현재 원본이 일본 天理大學에 소장되어 있고, 복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와 있다. 이 자료가 우리나라 학계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2011년 김용태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 것 같다(김용태(2011), 『漂海錄의 전통에서 본 『海外聞見錄』의 위상과 가치』, 『한국한문학회연구』 48, pp.295~331).

터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홍로현의 ‘대궐기’라는 곳이 오늘날의 어디에 해당하는가와 아울러, 송정규의 논의가 맞는가라는 점의 검토가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터 규명에서 우선시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즉,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터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홍로현의 ‘대궐기’ 위치 규명, 또한 송정규가 논의했던 이야기의 고증에 나서는 일을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大闕基”라는 지명의 성격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속칭과 구전을 통해 ‘대궐터’란 지명을 제주 지역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거니와, 이들은 동질적 유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문용어의 “大闕基”를 번역하면 곧 ‘대궐터’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런 만큼, 홍로현에 있었던 “大闕基”의 역사적 성격은 ‘대궐터’라 일컫는 다른 곳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송정규가 「해외문견록」 수록의 홍로궁기조를 통해, 홍로현 내에 “大闕基”란 곳이 있는데, 이는 몽골 황제 순제의 피난궁전이 조영되었던 곳임을 밝힌 내용에 대한 고증이 따라야 한다.

송정규의 경우는 300여 년 전에 이미, 홍로현이라는 군현에 위치해 “大闕基”라 일컫는 곳을 13세기 후반~14세기 후반, 곧 몽골의 제주지배기와 관련된 유적으로 보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그런 만큼, “洪爐縣” 관내 “大闕基”는 관련사서의 기록을 엄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를 오늘날의 제주역사·고고학적 연구성과와 접목해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 2. 제주 지역의 ‘대궐터’ 고증

원래 ‘대궐터’라 함은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들어섰던 곳을 말하나, 제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주의 경우는 왕이 거처하던 궁궐이 지어진 적이 없었음에도, 속칭과 구전의 ‘대궐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의 예로는 애월읍 상귀리 997번지 일대 항파두성의 성내,<sup>4)</sup> 강정동 4263번지 일대,<sup>5)</sup> 서흥동

4) 문선희(1978), 『삼별초의 뉘』, 제은경출판사, p.1(항파안내도).

5) 김태능(1967), 앞의 논문, p.187.

150·151번지 일대,<sup>6)</sup> 남원읍 하례리 283번지 일대<sup>7)</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반영해 일람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 제주도내 ‘대궐터’ 일람표

소재지	유래	기능
애월읍 상귀리 997번지 일대	항파두성 내성지 내 제주삼별초 지휘부 본영	제주 삼별초의 최고 지휘부 건물
강정동 4263번지 일대	동해방호소 관아 흔적, 혹은 유배 몽골왕족 거주처	관아 성격의 공공건물이나 저택
서홍동 150·151번지 일대	홍로현의 읍사	관아 성격의 공공건물
남원읍 하례리 283번지 일대	호아현의 향리 거주처	군현 향리집단의 주택 밀집 지역



〈그림 1〉 항파두성내 ‘대궐터’ 발굴현장(제공 제주고고학연구소)

이들 가운데 항파두성 내성지 내 대궐터는 1973년 정비사업으로 당시 주변이 정리되는 한편, 1978년 ‘항몽순의비’도 세워졌다. 지금은 전시관과 관리사무소도 들어서 있고, 항몽순의비 외곽으로 ‘ㅁ’(찰)자 형태의 돌담장이 70cm 폭으로 설치되어 있다. 통상, ‘내성’으로 일컬어져 왔었던 곳이기도 하다.

내성지는 2011년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sup>8)</sup> 그래서 내성지 안에서는 다른 곳

6) 서귀포시서홍동(1996), 『서홍로』, 서귀포시서홍동, p.46.

7) 남원읍 하례리(1999), 『하례마을 가마귀마루』, 하례마을회, p.52.

과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고급 유물도 수습되었다.

특히 내성지 수습유물 가운데 ‘고누놀이판’도 있었다. 고누놀이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래되어온 전통놀이로, 바둑과 장기의 원시적 형태, 혹은 윷놀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고누판에서 한 칸씩 말을 움직여 상대방 말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긴다. 대궐터의 고누놀이판 출토는 제주 삼별초의 경우도 전쟁의 외증이기는 하나, 고누놀이와 같은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일상적 삶을 살았음을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림 2〉 강정동 ‘대궐터’ 발굴조사 대상지의 유구배치도(공중촬영, 제공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최근에 대궐터는 향파두성의 17곳 건물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물, 또한 가장 돋보이는 고급유물을 사용한 시설물이 들어섰던 곳으로 확인되었다.<sup>9)</sup> 이에

8) 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사적 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대궐터는 김통정장군 등 제주 삼별초 지휘부의 건물이 설치되었던 곳이라 한다. ‘고누놀이판’의 대궐터 출토도 고누놀이가 지휘부에 해당하던 소수의 삼별초군이 즐겼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다음, 강정동 4263번지 일대의 대궐터에 대해서는 현종 9년(1843) 경 제주목사 李源祚와 같은 경우는 ‘毛羅王’이 도읍지로 삼았던 곳으로 비정하고 있기도 하다.<sup>10)</sup> 그러나 강정동 ‘대궐터’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14~15세기에 사용된 건물지와 기와편이 확인되었다.<sup>11)</sup> 이로써 이원조의 비정은 달리 생각해봐야 할 듯싶다. 한편 강정동 ‘대궐터’는 조선시대 때 가래촌에 들어섰던 東海防護所 관아의 흔적이거나, 명나라가 공양왕 때 제주로 유배 보낸 몽골황족 왕실의 가족 愛顔帖木兒 등의 주거용 옛터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논의도 있다.<sup>12)</sup> 이들 가운데 방호소 관아의 흔적이라는 고증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동해방호소의 경우는 세종 21년(1439) 이전부터 가래촌에 설치되었다고 하나,<sup>13)</sup> 이를 기와 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애안첩목아 등의 주거용 옛터라는 고증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14세기 후반 명이 제주로 보냈던 몽골황실 왕족 출신의 유배인은 자신과의 동족 몽골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곳, 곧 제주 서남부권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했고, 명과 고려도 이들의 거처를 제주 서남부권 지역에 지어주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sup>14)</sup> 그래서 애안첩목아 등의 거처가 강정동 ‘대궐터’에 지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서흥동 150·151번지 일대의 대궐터 경우는 전통적으로 鄉畝부지, 혹은 제주 4·3사건 때 학살터로 이용되는 등 공공의 시설물 부지나, 또는 공공의 마당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는 14~15세기 이전까지 시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와편도 도처에 상당히 깔려 있다고 한다.<sup>15)</sup>

9)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2),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종합 정비계획』, pp.53~72.  
 10) 『耽羅誌草本』, 大靜, 古墳초.  
 11)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5), 「제주 강정동 대궐터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12) 김태능(1967), 앞의 논문, p.187.  
 13)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5), 앞의 보고서, pp.16~17.  
 14)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p.148~149.  
 이와 관련해서는 본 글에서도 후술되고 있기도 하다.  
 15)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139.



〈그림 3〉 서흥동 '대궐터'(제공 박용범)

특히, 서흥동은 인근 주변의 동흥동과 더불어,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이르러, 烘爐縣이라 일컫는 군현으로 편제된 적도 있었던 지역이다. 이에 고려후기 때 서흥동 지역은 현 서귀포시 12개 행정동 동쪽 일대에서 가장 커다란 마을이 들어서 있었고, 또한 군현 업무를 관할하던 문司도 세워져 있었던 곳으로 봄이 타당할 듯싶다. 오늘날 서흥동 지역의 주민들도 대궐터에는 홍로현의 읍사가 들어섰고, 그 때문에 대궐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으로 보곤 한다.<sup>16)</sup>

마지막으로, 남원읍 하례리 283번지 일대의 대궐터 경우도 고려의 狐兒縣과 관련됐다고 본다. 하례리 지역은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이르러 호아현이라는 군현으로 편제된 적이 있었는데, 대궐터는 호아현의 관아로서 기능하던 읍사 소속의 향리들이 집단적으로 살았던 집터로 보곤 한다.<sup>17)</sup> 한편, 호아현의 경우는 향리가 최고위 행정요원에 속하며, 가장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높았을 것이다. 이에 호아현의 향리가 집단적으로 살던 곳이 호아현 일대에서 가장 위용스런 주택 건물이 들어섰던 집터이고, 그 때문에 대궐터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 볼 수 있겠다.

제주는 역사적으로 왕이 살던 거처, 곧 대궐이 들어선 적이 없고, 주요 관아의 건물 지붕도 ‘새[볍과 식물]로 엮었음이 조선시대 사서에서도 종종 언급될 정도

16) 서귀포시서흥동(1996), 앞의 책, p.46.

17) 남원읍 하례리(1999), 앞의 책, p.52.



였다. 민가의 기와집 경우는 19세기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이것도 정치·사회·경제적 특수층만이 건립했다고 한다.<sup>18)</sup> 그럼에도, 제주 지역의 곳곳에는 ‘대궐터’라는 일컫는 지명과 함께 그 현장이 남아 있다. 또한 ‘대궐터’라 일컫는 곳은 통상 기와편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제주 건축사의 역사적 추이로 봐, 제주 사람이 오래 동안 ‘대궐터’라 일컬어왔었던 곳은 관아 성격의 공공건물, 불교 사찰, 혹은 특권계층의 저택 등과 같은 시설물이 들어섰던 적이 있고, 그 까닭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겠다. 이는 항파두성의 대궐터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항파두성의 17개 건물지 가운데 가장 커다란 건물이 들어섰던 곳은 대궐터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궐터라는 제주 지역의 지명은 주변 일대에서 가장 커다랗고, 위용이 넘치는 건물이 들어섰다는 곳이라 해서 그 이름이 따라 붙었을 것이다.

### 3. 洪爐縣의 “大闕基”와 그 위치 비정

“洪爐縣” 관내 가운데 “大闕基”라 일컫는 곳이 있다는 기록은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이 오늘날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우선, 홍로현의 ‘대궐기’라는 지명이 확인되는 사서의 기록 전체 원문과 번역문을 다 같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료 ① 洪爐宮基

옛날 홍로현은 한라산 남쪽 기슭 아래에 있었다. 땅의 형세가 평탄하고 탁 트이며 샘물이 달고 땅은 비옥하다. 산 뒤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좌우로 맑은 물이 흘러간다. 정말로 이 섬 중에서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 지금은 큰 마을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 살고 있다. 마을 안에는 평평한 밭이 있는데 그 크기가 사방 수 백보가 된다. 나이든 촌로들이

18)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문화예술재단, p.431.

‘대궐터’라 일컫는다고 말을 전하고, 먼 옛날의 문헌에도 역시 대궐터라 칭했다. 旌義 일대의 그 어떤 곳도 예부터 기와집이 없었으나 오직 이 밭에서만 기와 조각이 많이 있다. 또한 주춧돌까지 있다. 지금은 인가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궁실의 유지였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탐라는 한라산 북쪽에 도읍을 틀었으니 지금의 제주성이다. 여기 외에는 궁궐이 자리잡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고려사』를 살펴보건대, 원나라 순제가 제주로 피난하려고 사신을 보내 황실창고의 금과 비단을 실어 보내고 또 궁실을 조영했다. 목수들이 모두 가족을 데리고 왔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원나라가 망해버렸다. 또한 이 섬에는 모두 나쁜 돌만 있는데 오직 산방산 돌만은 좀 낫다. 그 아래에 캐고서는 운반하지 않고 해변에 쌓아둔 것이 많이 있다. 홍로 남쪽으로 5~6리쯤에 서귀포가 있는데 지리지에는 원나라에 조공할 때 바람을 기다리던 후풍치였다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 이러한 몇 가지 근거로 보면 순제가 경영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한다. 필부 하나가 갈 길을 모르고 사해(중국)가 들끓으니 천하가 넓음에도 몸 둘 데가 없었다. 이에 스스로 남쪽 바다 만 리 밖에 자신을 숨기려 하였도다. 아! 슬프도다.<sup>19)</sup>

이를 보자면, 홍로현 마을 가운데 300여 년 전부터 “大關基”, 곧 번역하면 ‘대궐터’라는 곳이 있었고, 이는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자료는 제주의 속칭과 구전에 의해 드러나는 ‘대궐터’라는 지명이 ‘大關基’라는 한문용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송정규가 제주 사람이 ‘대궐터’라고 일컬어 왔었던 곳의 지명을 한자차용의 “大關基”라고 표기했다

19) 송정규(1656~1710), 『海外聞見錄』 수록 洪爐宮基조(1706년 경 저술),

“古洪爐縣 在漢擘南麓下 地勢平敞泉甘土肥 背山面海左右清流 實島內之勝區也 今有大村聚居其地 村中有平田 可方數百步 古老相傳爲號大關基 久遠文券亦以大關基稱之 旌義一境 自古無瓦屋 而獨此 田多瓦片 又有礎石 今入人家 可證其宮室遺址 而未知何代所作 耽羅則都於山北 卽今之州城 此外未 聞以宮闈名其居者 按高麗史 元順帝 欲避亂於濟州 遣使輸御府金帛 且營宮室工匠 皆挈家而來 功未 訖而元亡 又島中皆惡石 惟山房石差勝 其下多有伐石未運 而積置海邊者 洪爐南五六里有西歸浦 地志 俗傳朝元時候風處 據此數端 疑順帝所營 卽此地也 夫一人失道 四海鼎沸 以天下之大 無地置身 乃欲 自竄於南溟萬里之外 哀哉”

면, 이는 ‘대궐터’ 한자차용 표기의 첫 용례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하여튼, 사료 ①의 “大闕基”가 오늘날의 어디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홍로현 관내의 마을에 있었다는 사실이 추적의 실마리가 된다.

홍로현은 고려 충렬왕 26년(1300) 이래 생겨났거니와, 이후 조선 태종 16년(1416)에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의 3개 읍에 직촌 등으로 병합·분산 배속된 15개 현 가운데 하나이다.<sup>20)</sup> 홍로현의 구역과 마을이 오늘날 서귀포시 12개 행정동 가운데 서흥·동홍동과 계보가 이어진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21)</sup> 이들 지역과 함께, 홍로현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규명과 그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濟州島의 행정구역 분포도를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濟州島의 제주·서귀포시 관내 洞·읍면 구분도

20) 김일우(2007),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pp.308~312.

21) 서귀포시서흥동(1996), 앞의 책, pp.42~44.



〈그림 5〉 서흥동 ‘대궐터’ 출토 기와(제공 박용범)

〈그림 4〉 가운데 ① 법환동 지역의 경우도 홍로현에 속했음은 법환포구 앞 바다 가까이 위치한 범섬의 경우도 홍로현 관내였다는 사실을 통해 엿볼 수 있다.<sup>22)</sup> 그리고 〈그림 4〉의 ② 강정동 지역 동쪽 일대는 범섬과 가까운 해안마을로서, 고려 후기 15개 현 가운데 ⑤ 예래동과 계보가 잇닿는 猊來縣, 그리고 ④의 서흥동과 마을 연혁이 이어지는 홍로현 사이에 위치하나, 홍로현에 보다 더 가깝다.<sup>23)</sup> 특히, 강정동 4264번지 일대이고, 현재도 강정동 ‘대궐터’라 일컫는 곳의 경우는 더욱 더 홍로현의 읍사가 있었다는 서흥동 150·151번지 일대, 속칭 서흥동 ‘대궐터’와 인접하다. 그런 만큼, 오늘날 강정동 지역의 동쪽, 특히 강정동 ‘대궐터’ 일대 마을의 경우는 더욱 홍로현 관내에 속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사료 ①을 보자면, “정의 일대의 그 어떤 곳도 예부터 기와집이 없었으나 오직 이 밭(大闕基)에서만 기와 조각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大闕基”가 마치 조선시대 때 정의현 관내에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것처럼 이해하기 쉽상이다. 또한 오늘날의 서흥동 일대는 조선시대 때 西洪爐里와 계보가 이어지는 곳이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정의현, 산천조 凡島.

23)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153.

며, 서흥로리는 정의현 右面 소속 10개 리 가운데 하나였다.<sup>24)</sup> 게다가 서흥동 150 · 151번지 일대가 지금도 ‘대궐터’라고 일컬어진다. 그런 만큼, 사료 ①의 “大闕基”가 오늘날의 강정 · 서흥동 대궐터 가운데 어느 것을 지칭했는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사료 ①의 “大闕基”는 강정동 ‘대궐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sup>25)</sup>



〈그림 6〉 강정동 ‘대궐터’ 출토기과(제공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우선, 서흥동 대궐터는 고려시대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기와편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초석은 확인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구전이기는 하나, 서흥동 대궐터가 고려시대 홍로현의 읍사가 들어섰던 곳으로 이야기 되어 왔었던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구전의 경우는 홍로현이 폐지된 다음, 정의현의 직촌으로 편제되는 태종 16년(1416) 이후에 생겨나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사료 ①의 “大闕基”가 서흥동 대궐터를 가리킨다면, 송정규도 그 구전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다. 반면, 강정동 ‘대궐터’는 지표상으로도 다수의 주초석과 다량의 기와편이 오랜 세월 노출되어 왔었던 곳이다. 이는 사료 ①의 “大闕基” 주변 유물분포 형상을 설명한 것과 흡사하다. 또한 뒤에 게재한

24) 『濟州邑誌』(1780~1789년 경 편찬), 旌義縣誌, 坊里조.

25) 이하의 서술내용은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p.153~155의 연구성과에 의존한 바가 크다.

사료 ②를 보면, 오늘날의 강정동 ‘대궐터’를 지칭하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여기 내용도 사료 ①의 “大闕基” 주변 유물분포 관련 설명과 유사하며, 오늘날의 강정동 ‘대궐터’ 현지조사와도 일치한다.

둘째의 근거로는, 사료 ①에서 “大闕基” 출토 기와 편을 갖고서 정의현 일대의 시설물과 견주어 설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애초 홍로현 구역과 마을 가운데 오늘날의 서흥동과 동흥동 및 법환동 지역은 조선시대 태종 16년(1416) 이래, 그것도 송정규가 제주목사로 재직하던 1700년대 초반 무렵에는 정의현 관내 구역에 해당했다.<sup>26)</sup> 한편 오늘날 강정동 지역의 경우는 홍로현이 군현단위로서 기능할 때는 홍로현 관할 구역이었을 것이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와 태종 16년(1416) 정의현과 대정현이 생겨나자, 강정동 지역은 대체적으로 대정현 관내로 흡수되었고, 일부만이 정의현 관할 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하겠다. 이는 송정규가 제주목사로 재직하던 시기에도 지속되었을 듯싶다. 그런 만큼, 강정동 ‘대궐터’의 경우도 홍로마을의 궁궐터라는 뜻을 가진 “洪爐宮基”라는 기사제목을 내세워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기사제목은 “大闕基”가 홍로마을에 생겨난 것은 홍로현이 군현단위로서 기능하던 시대, 곧 몽골의 제주 지배기 때였다고 보는 송정규 견해와도 맞물려 있기도 하다. 즉, 홍로궁기는 홍로 마을에 있었고, 홍로현이 군현단위로 기능할 때는 오늘날 강정동 지역, 특히 강정동 ‘대궐터’가 자리잡은 강정동 4264번지 일대도 그 관내에 들어가는 구역이라 강정동 ‘대궐터’도 홍로궁기라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大闕基” 잔존 기와 편을 갖고서 정의현 관내의 시설물과 견주어 설명한

26) 李衡祥은 숙종 28(1702)~29년(1703)에 제주목사를 지내면서 『耽羅巡歷圖』를 편찬했다. 여기에 수록된 화폭 중 ‘漢拏壯觀’이라는 제명으로 실린 제주지도에 의하면 대정현과 정의현의 경계가 북쪽은 <그림 4>의 ‘고근산’ 서쪽 편, 남쪽 해안지대는 <그림 4>의 ① 법환동 소재 ‘法還浦’와 ② 강정동 동쪽 소재 ‘塞水’의 중간지점이 되고 있다. 이들 경계 가운데 법환포 서쪽 일대는 오늘날에 와 법환동 구역에 해당하기도 하나, 일부는 강정동 구역으로 들어간다. 또한 색수는 현재 서귀포시 강정동의 ‘犀建島’라는 섬의 동쪽 바닷가 일대의 포구를 일컫는데, 그 동북쪽의 상당히 넓은 지대가 강정동 구역에 해당한다.

것은 애초 홍로현 관할의 구역과 마을이 전반적으로 정의현 관내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이는 송정규가 “大關基”에는 여태 홍로마을, 더 나아가 훗날에 생겨난 정의현 일대를 통틀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위용을 갖춘 건물이 들어섰던 곳이었음을 사실적이고, 또한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 했던 의도와도 관련되었을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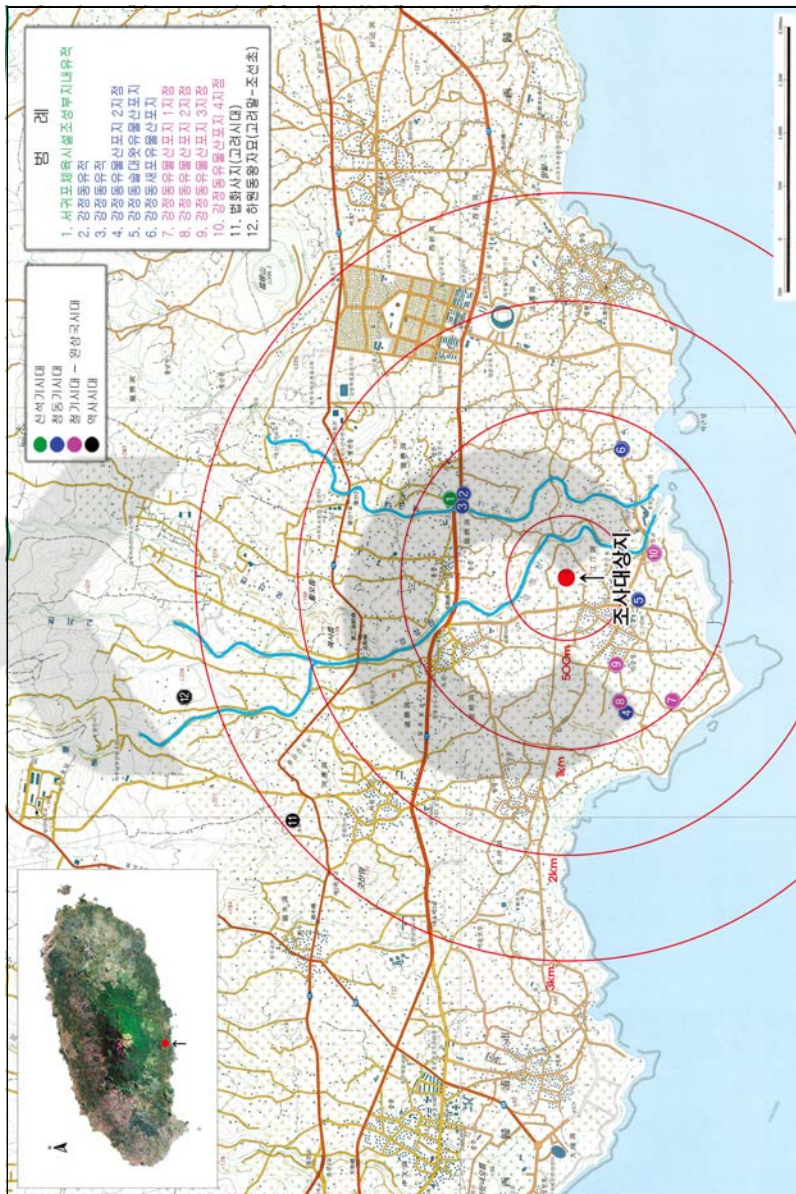
한편, 강정동 ‘대궐터’는 2015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곳 일대의 도면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7>과 같다. 이어 발굴조사의 내용을 보자면,<sup>27)</sup> 강정동 ‘대궐터’ 유적은 고려말~조선초기에 걸쳐 사용된 기와집 건물터의 존재가 확인되고, 민가건축물과는 다른 형태의 것이 들어섰던 것으로 보이나, 초석렬과 건물의 규모·구조·배치상태를 밝히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대궐터라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14~15세기 때 제주에서 기와집은 매우 특이한 존재였다. 제주 지역은 조선 중종 16년(1521) 이전 무렵만 하더라도 기와집은 매우 드물고, 정의·대정현의 官舍도 초가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sup>28)</sup> 그런 만큼, 14~15세기 강정동 ‘대궐터’에 세워진 기와집은 특수계층이나 특수용도의 저택일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또한 정의현과 대정현 일대에서는 그 어느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위용이 넘치는 건물이었다고 봐야 한다. 강정동 ‘대궐터’ 경우도 제주에서 종종 ‘대궐터’로 일컫는 유적과 범주를 같이 하는 만큼, 대궐터로 봐도 무방할 듯싶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자면, 제주목사 송정규가 300여 년 전 순제의 제주 피난 궁전 터로 비정했던 ‘홍로현’의 “大關基”는 오늘날의 강정동 ‘대궐터’를 지칭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더 나아가, 강정동 ‘대궐터’ 경우는 유독 사서를 통해 한문용로서의 “大關基”로 표기되었음이 드러나는 곳이라 하겠다.

27)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5), 앞의 보고서.

28) 金淨, 『濟州風土錄』(『冲庵先生集』 권4)





〈그림 7〉 강정동 '대궐터'의 조사대상 위치와 주변유적 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조: 제공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4. 홍로현 관내 “大關基”의 역사적 고증

이미 300여 년 전 사료 ①에 나온 홍로현 관내 “大關基”가 오늘날로 치자면 강정동 ‘대궐터’를 말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장황스럽게 고증한 바가 있다. 이에 홍로현 관내 “大關基”의 역사적 고증은 강정동 ‘대궐터’에 대한 역사적 성격을 규명함과 진배없다고 봐야할 것이다.<sup>29)</sup>

##### 4.1. 13~14세기 제주의 서남부 지역과 造營공사

13세기부터 14세기 후반 무렵은 몽골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몽골은 13세기 초반부터 발흥하기 시작해 중국 대륙과 고려 및 安南 지역 등의 동아시아를 비롯해 유라시아 지역에 걸쳐 100여 년 동안 몽골제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형성했다. 이후 元·明교체기를 거치면서 14세기 후반 무렵 몽골의 시대가 붕괴되고 명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재편되었다. 이리는 동안 제주는 몽골의 직할령으로 편입되고, 몽골황실의 왕족과 그 일족의 상당수가 유배 오는 등 격변을 겪었다.<sup>30)</sup> 이와 관련해 제주사회의 중심축도 서남부 지역 쪽으로 옮겨졌던 한편, 제주의 서남부권에 대규모 조영공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데는 몽골이 애초부터 제주의 서남부 지역에 눈독을 들인 데서 비롯했다고 보인다.

몽골의 제주지배기 때는 제주의 서남부권이 제주사회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다.

제주의 지역별 구분의식을 보자면, 한라산을 경계로 삼아 山北과 山南, 이어 산남을 다시 서쪽과 동쪽 편으로 나눈다. 이는 조선시대 태종 16년(1416) 제주의 군현개편이 이루어질 때 산북 지역은 濟州牧, 산남의 서쪽과 동쪽을 각각 大靜縣과 旌義縣으로 편제했던 사실과도 관련되었다.<sup>31)</sup>

조선시대 제주목의 읍성은 앞서 제시한 <그림 4>의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29) 본 4장의 내용은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p.141~163의 서술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은 편이다.

30) 고려시대 몽골의 제주지배기에 대해서는 김일우(2000), 앞의 책, pp.259~385 참조. 이와 관련한 본고의 논의도 본책에서 밝힌 내용에 의존해 서술한 편이다.

31) 김일우(2007), 앞의 논문, pp.308~312.

가운데 삼도·이도·일도동 일대, 대정현의 읍성은 대정읍의 인성·보성·안성리 일대, 정의현의 읍성은 성산읍 고성리를 거쳐 표선면의 성읍리 일대에 들어섰다. 이로부터 제주 지역은 삼읍의 3개 문화권으로 대별해 보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나아갔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도 제주 사람의 地緣과 관련해서는 산북출신, 산남의 대정·정의출신으로 각각 구분해 따질 정도에 이르기도 했다.

한편 <그림 4>의 서귀포시 12개 행정동 지역 가운데 중간지대의 ①과 ② 일대는 조선시대 때 대정현과 정의현의 경계가 접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때는 오늘날 서귀포시 22개 법정동 가운데 각각 하나로 존재하는 법환동 일대와 강정동 동쪽 일대, 그 북쪽 소재의 오름 ‘고근산’ 일대를 경계로 서쪽 지역은 대정현, 동쪽 지역은 정의현의 관내가 되었는데, 시기에 따라 그 경계가 넘나들기도 했다. 그래도 제주의 서남부는 한라산 이남 지역으로, <그림 4>의 서귀포시 12개 행정동 지역의 중간지대로부터 대정읍에 이르는 서쪽 지역 일대를 일컫는 편이다. 이들 서남부권의 경우는 몽골이 제주 삼별초를 정벌해 제주 지역을 직할령으로 삼은 원종 14년(1273) 보다 앞선 원종 9년(1268) 이래부터 주목했다고 보인다.

몽골은 원종 9년에 사신을 고려에 보냈는데, 이들은 南宋과 일본정벌을 위해 직접 黑山島와 일본 주변의 해로를 살펴본 뒤, 본국으로 돌아갔다.<sup>32)</sup> 이때 몽골 사신은 제주 주변의 해로에도 유의했을 것이다. 몽골 황제 쿠빌라이의 경우를 보더라도, “耽羅”의 바닷길로 남송과 일본에 가기가 매우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종 10년에 제주 등의 주변 도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던 적이 있었다.<sup>33)</sup>

몽골이 남송과 일본정벌을 위해 제주의 바닷길을 주목했을 때, 그 구체적 위치는 제주의 서남부 지역과 그곳 해로였을 것이다.<sup>34)</sup> <그림 4>의 ⑦ 洪爐川도 바다와 잇닿는 하천인데, 제주 지역에서 元나라에 조회할 때 순풍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했다.<sup>35)</sup>

32) 『고려사』 권26, 세가 원종 9년 10·11·12월조.

33) 『元史』 권208, 열전 外夷 1 탐라 至元 6년 7월조.

34) 김일우(2002), 「고려후기 제주 法華寺의 중창과 그 위상」, 『한국사연구』 119, p.37.

제주 서남부의 해로가 중국 대륙·고려 지역을 잇는 바닷길로 자주 이용되었다는 점은 기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곧, 중국의 명저우[明州] 지역 송나라 상인이 동북쪽으로 항해해 흑산도를 거쳐, 群山島(조선시대 말까지 섬)에 다다르고, 이후에는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나아가 태안반도에 이른 다음, 강화도를 거쳐 예성강 하류에 위치한 해외 무역선의 최종 정박지 벽란도에 7일 걸려 도착하는 바닷길을 활발하게 이용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sup>36)</sup> 이에 제주의 서남부 지역과 그곳 해로가 남송과 일본 및 원 지역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에 해당했고, 그 때문에 몽골이 제주의 서남부권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왕실도 몽골 사신이 남송 정벌의 해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제주의 서남부 지역과 그곳 해로에 주목했음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제주 법화사와 관련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법화사가 원종 10년(1269)부터 충렬왕 5년(1279) 사이에 다시 지어진 적이 있었음과 아울러, 그 사찰의 위치가 <그림 4>의 ③ 하원동 1071-1번지 일대에 자리했다는 사실 등이다(<그림 7> ①).<sup>37)</sup> 즉, 법화사 중창은 몽골이 제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다가, 고려와 연합해 제주 삼별초를 평정한 다음, 여기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던 초창기 무렵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법화사 위치는 해안가 가운데 대포동의 大浦와 가장 가깝고, 그 거리가 4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sup>38)</sup> 대포는 중국과의 교류에 이용되었던 연유로 ‘唐浦’라 일컬어졌다는 구전도 지닌 포구이다. 법화사는 원종 9년(1268) 전후 무렵 몽골이 남송과 일본정벌의 전초기지로서 제주를 경영하고자 할 때, 가장 주목했던 제주의 서남부권에 자리잡은 사찰이었던 것이다.

법화사의 중창 과정과 그 위상을 보자면, 중창의 시작은 고려왕실의 착안으로 비롯되었으나, 본격적인 추진과 마무리는 몽골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애초, 고려 왕정은 국가 평화와 왕권강화를 위해 원 황제 쿠빌라이의 호의를 끌어내고자 원종 10년(1269)부터 황제의 원찰과 같은 사찰의 조성을 위해 법화사 중창을 계

3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정의현 산천조.

36) 『高麗圖經』 권39, 海道: 「通江南浙江商舶議」, 『北學議』 외편: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143.

37)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p.143~144.

38)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1997), 『법화사지』, pp.27~29.

획·추진하였으나,<sup>39)</sup> 삼별초의 제주진입 등으로 지지부진했을 것이다. 반면, 제주가 원종 14년(1273) 몽골의 직할령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몽골이 자신의 제주경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법화사 중창을 이어 받은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가 충렬왕 5년(1279) 마무리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화사 중창은 이곳이 고려왕실과 몽골황실이 같이 신봉하던 관음신앙에 기초한 사찰이었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특히, 지리적 위치가 남송과 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제주 서남부의 해안지대로부터 가까운 곳에 자리잡았다는 사실이 법화사 중창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듯싶다.

결국 법화사 중창은 고려와 원의 국가적 필요성이 중첩되어 이뤄졌으나, 중창 이후 법화사는 고려보다 더 원에 가까운 사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sup>40)</sup> 중창 이후 법화사는 원 황실의 원찰임과 동시에, 제주에 거주한 상당수의 몽골족이 드나들던 종교적 안식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제주가 한때 고려에 환속했던 충렬왕 20(1294)~26년(1300) 고려의 비보사찰로도 지정되고, 이후에도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아갔을 것이다. 아울러, 몽골이 제주를 지배하는 100여 년 동안 일어난 제주사회의 변화·동향과도 맞물려 법화사는 몽골족 뿐만 아니고, 그와 혼인한 제주여성 및 그 사이 태어나 半몽골족화된 제주민으로 구성된 몽골족 가족, 또한 토착주민도 함께 종교적 안식처로 찾는 곳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화사의 기능은 복합적이고, 그 위상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겠다.

더욱이, 법화사는 사찰로서 지녔던 자신의 위상을 매개로 몽골의 제주사회 지배를 뒷받침하는 관아와 같은 기능도 지녔다고 보인다. 그리고 元의 ‘良工’이 주조한 “彌陀三尊銅佛”이 안치되어 있었는데,<sup>41)</sup> 이는 몽골 황제 순제가 원 멸망 직전 제주에 피난궁전 조영을 추진할 때 보냈던 재화와 보물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sup>42)</sup> 이에 법화사 경내, 혹은 寺領地에는 후술하고 있는 황제 순제의 피난궁전 터도 자리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법화사 일대에 몽골의 중심적 세력기반

39) 김일우(2002), 앞의 논문, pp.32~43.

40) 김일우(2002), 앞의 논문, pp.43~54.

41) 『太宗實錄』 권11, 태종 6년 4월 경진.

42) 岡田英弘(1958), 앞의 논문, p.60.

이 존재했으며, 공민왕대(1352~1374) 이르러서는 제주사회의 중심지역과 권력의 중심부가 이미 제주 서남부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민왕 23년(1374) 최영장군의 제주정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sup>43)</sup>

제주 몽골족의 세력기반은 공민왕 23년(1374) 최영장군이 대규모 정예군을 이끌고 제주에 들어와 몽골족 牧胡勢力을 평정함에 결정적으로 붕괴되었다. 이때는 몽골이 세운 동·서아막의 목장 가운데 제주의 서남부 지역, 곧 현재의 한경면 고산리 일대에 자리잡은 서아막의 목호세력이 제주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또한 최영장군의 대규모 정예군이 상륙지점으로 택하고, 목호세력의 수뇌부가 騎兵 3,000여 명과 수많은 보병을 거느려 포진했던 곳도 제주의 서쪽, 곧 현 한림읍 明月浦 일대였다. 한 달 여간 주야로 벌어진 최영장군과 목호세력의 전투도 처음 명월포에서 벌어진 뒤, 줄곧 목호세력이 점점 더 서남부 지역 쪽으로 밀려가는 상태에서 전개되었다. 목호 수뇌부가 피신했다가 최후를 맞이한 곳도 범회사 언덕에서 내다보이는 서귀포시 범환동의 범환포구 앞 바다 가까이 위치한 범섬이었다. 그리고 범섬은 목호세력의 최고위층이 자신의 처자식을 앞서 피신케 했던 곳이기도 하다.<sup>44)</sup> 이로 볼 때, 서아막이 제주의 동남부 성산읍 수산평 일대의 동아막 보다 더욱 번성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목호가 지닌 세력기반의 주축이었을 몽골족과 아울러, 이들과 제주여성 사이에 태어난 반몽골족화의 제주민 등도 주로 제주의 서남부 지역에 거주했던 것 같다. 그런 만큼, 『明太祖實錄』 권75, 태조 5년 7월조에 몽골족 ‘部落’이라 일컫는 마을도 제주 서남부 지역에 들어섰을 듯싶다.<sup>45)</sup>

공민왕대(1352~1374)에 이르러서는 제주사회의 중심지역과 권력의 중심부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왔었던 <그림 4>의 현 제주시 19개 洞 지역으로부터 이미 서남부 지역 쪽으로 옮겨왔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서남부 지역과 그 해안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 지역을 잇는 바닷길의 요충지였고, 또한 서아막이 동아막보다 훨씬 더 번성해 나아갔던 사실에도 힘입은 바가 컸다고 보인다. 이들 지리적

43) 김일우(2000), 앞의 책, pp.380~384.

44) 『고려사』 권113, 열전, 최영전.

45) 제주 이주·정착의 몽골족과 그 후예가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곳이 서귀포 서남부 지역으로 보는 논의는 배숙희에 의해서도 제기되었음이 확인된다[배숙희(2012, 「元末·明初의 雲南과 古元 後裔의 濟州 移住」, 『동양사학연구』 119, pp.215~216].

여건은 애초부터 그러했고, 동아막보다 서아막의 변성도 목마장이 설치되는 충렬왕 초창기 때부터 비롯했을 것이다. 곧, 몽골족의 세력기반이 주로 제주 서남부 지역에 형성하게 된 것은 몽골의 제주지배가 이루어지는 초창기부터였다고 하겠다.<sup>46)</sup> 이는 원나라가 파견한 몽골족 세력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자마자, 제주의 서쪽에 위치한 항파두성에 주둔하거나, 혹은 이 성을 계속적으로 활용해 나아갔던 사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곧, 제주 몽골족의 경우는 일찍부터 제주의 서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하겠다. 또한 몽골의 제주지배 초창기 때 법화사 중창과 같은 대규모 조영공사가 제주의 서남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3세기 후반~14세기 후반 때 몽골 관련 제주 지역의 조영공사는 법화사 중창만이 아니었다. 이 시기의 조영공사는 사서에 특기될 만큼, 대규모의 것만 헤아리더라도 두 차례나 더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몽골 황제 순제의 피난궁전 조영이다.<sup>47)</sup>

순제는 공민왕 15년(1366) 무렵부터 탐라에 피난궁전을 짓는 것을 계획·추진해 나아갔다.<sup>48)</sup> 『고려사』에도 순제가 원이 사실상 망하는 공민왕 17년(1368) 이전 목수 元世 등을 제주에 보내 피난궁전을 조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sup>49)</sup> 이 궁전의 조영계획과 착수 때문에 원의 사신이 공민왕 15년 무렵 제주에 왔었던 적도 있다고 한다.

순제는 몽골족 목호세력이 장악·관할하던 제주에 피난궁전을 짓고자 했는데, 이는 중국대륙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지역으로의 피난뿐만이 아니고, 훗날의 재기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을 듯싶다. 공민왕 16년(1367)에는 高大悲가 순제 피난에 대비해 황실창고의 귀중품도 탐라로 수송했다.<sup>50)</sup>

순제의 피난궁전은 공민왕 15년(1366) 무렵부터 공민왕 17년(1368)까지 2년 넘

46)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p.146~147; 이개석(2016), 「몽골의 탐라 지배와 항파두리성」,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문, pp.304~306.

47) 김일우(2000), 앞의 책, pp.359~367.

48) 岡田英弘(1958), 앞의 논문, pp.58~59.

49)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8년 9월조.

50) 『고려사』 권41, 세가, 공민왕 16년 2월조.

게 조영공사가 계획·추진되었으나, 공민왕 17년 8월 원이 망함으로 준공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순제 피난궁전의 조영은 그 터가 확연히 드러날 만큼 진척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터인데, 그동안의 논의는 아직까지도 피난궁전 터를 밝혀내지 못하고, 법화사 경내일 것으로 추측하는데 불과할 뿐이었다. 이 추측은 그리 어긋나지 않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순제가 아무리 급하게 제주로 피신한다손 치더라도, 자신의 신변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을 택해 피난궁전 터를 잡았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곧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터는 제주 몽골족의 세력기반이 공고·안정화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거니와, 그 지역은 법화사 경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개연성이 자못 높았다고 하겠다. 이는 몽골족이 제주에 들어와 중창을 일으켰던 법화사의 경내에는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말에 걸쳐 제주도내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었다는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하겠다.<sup>51)</sup> 이로써 제주의 서남부권은 14세기 후반에 대규모 조영공사를 벌였던 건물지 유적, 곧 순제 피난궁전 터가 잔존해 있을만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몽골의 제주지배기 때 일어났던 대규모 조영공사로서 사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은 85체에 달한 주택건설이다. 오늘날로 치자면, 대규모 주택단지조성과 주택건설이라 할 수 있다.

제주는 명나라의 유배지로도 이용되었다. 명은 공민왕 17년(1368)에 원을 밀어내 사실상 중국의 새 주인이 된 뒤, 잔존세력으로 버티던 몽골의 황실족속을 평정해 제주로 유배 보냈던 것이다. 이것의 예로는 雲南의 梁王을 평정하고, 그의 아들 伯伯 등 일족을 우왕 8년(1382)에 제주로 보냈던 일을 들 수 있다.<sup>52)</sup>

이어 昌王 즉위년(1388)에는 명 황제가 말과 환관을 요구하는 한편, 원의 잔존세력으로 귀순한 達達親王 등 80여 호를 제주에 보낸다는 사실을 알린 다음, 이들이 거처할 방을 고려로 하여금 꾸미게 한 뒤에 돌아와 이를 보고하라는 사명을 지닌 사신도 고려에 보냈다. 이에 고려는 典理判書 李希椿을 제주에 보내 85개에 달하는 거처를 새로 짓거나 수리케 했다.

51) 강창화(2000), 「제주 법화사지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사연구』 9, pp.28~33.

52) 김일우(2000), 앞의 책, 349~350.

이 일이 있고 난 5개월여 후에도 명은 항복한 원의 왕족을 제주에 유배 보냈다. 그리고 공양왕 4년(1392)에는 양왕의 자손 愛顔帖木兒 등 4인도 제주로 유배 보내 拍拍太子(운남 양왕의 아들 백백을 말함) 등과 함께 살게 했다.

1380년대 제주의 대규모 주택단지조성과 주택건설은 원·명교체기 무렵의 일이며, 그 주체는 명과 고려이다. 그런데 이들 주택은 몽골황실 왕족 출신의 제주 유배인이 거주할 용도로 지어졌고, 사실 살았다.<sup>53)</sup> 또한 명의 경우는 이들 유배인의 제주 생활과 훗날을 선처·배려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그것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고려에 압박을 가하는 언사와 행동을 취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교적 수사도 들어가기도 했었을 것이나, 제주로 유배 보낸 망국의 왕족출신을 우대·배려하는 조치도 실제적으로 행했을 것이다.<sup>54)</sup> 이는 백백태자가 제주에 산지 18년이 지난 무렵에도 宦官을 거느리는 한편, 조정으로 가 말과 금가락지를 바칠 만큼,<sup>55)</sup> 왕족으로서의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고려의 경우도 명의 요구에 신속히 행동하고,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조영공사의 감독자로 정3품의 고위관직자 전리판서 이희춘을 보냈던 것으로 보, 85채의 주택을 규모 있게 조성했을 것이다.

특히, 명은 몽골황실 왕족 출신의 제주 유배인이 거주할 곳과 관련해서는 지역적으로도 배려했던 것 같다. 명은 양왕의 자손 애안첩목아 등 4명을 제주로 유배 보내면서도 10년 전부터 이미 제주 생활을 시작한 백백태자 등과 함께 살게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애안첩목아 등이 제주라는 생소한 곳에 와 겪을 애로점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선의도 곁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애안첩목아 등도 제주에 유배되더라도 이곳의 몽골족과 더불어 살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 만큼, 1388년 이래 명이 제주로 보냈던 몽골황실 왕족 출신의 유배인들도 몽골족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곳, 곧 제주 서남부권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했고, 명과 고려도 이들의 거처를 제주 서남부권 지역에 지어주었다고 봄에 무리가 없을 듯하다.

53) 양왕의 아들 백백태자는 우왕 8년(1382)에 제주로 유배 왔는데, 이로부터 22년이 지나 제주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太宗實錄』 권8, 태종 4년 10월 임신).

54) 배숙희(2012), 앞의 논문, pp.206~212.

55) 『正宗實錄』 권5, 정종 2년 9월 정축.



요컨대, 몽골의 제주지배가 이루어지던 13세기 후반 무렵부터 제주사회의 중심추가 점차적으로 서남부권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14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제주의 서남부권이 제주사회의 중심지역과 권력의 중심부가 자리잡은 곳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이에 힘입어 순제의 피난궁전 조성, 이어 몽골황실 왕족출신 제주 유배인의 대규모 주택단지조성·주택건설 등과 같은 조영공사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들 조영공사의 터는 제주의 서남부 지역, 그것도 고려후기 법화사 경내에 해당하는 곳에 남아있을 듯싶다.<sup>56)</sup> 다만, 이들을 여태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 4.2. 강정동 ‘대궐터’ 관련 史書기록과 발굴조사 및 주변 유적

강정동 ‘대궐터’는 2015년 들어와 발굴조사도 이루어졌다. 최근, 강정동 ‘대궐터’의 역사적 고증 관련 자료는 하나가 더 보태어져 사서기록, 발굴조사, 주변 유적과 같이 3종에 달하게 된 것이다. 강정동 ‘대궐터’ 경우는 어느 곳 대궐터와 달리, 고증 관련 자료가 꽤 많은 편이라 하겠다. 이들 가운데 사서기록의 경우는 2가지인데, 그 하나가 앞서 제시한 사료 ①이다.

이미 사료 ①에 대해서는 옛적 홍로현 소재의 “大闕基”가 오늘날의 강정동 ‘대궐터’를 말한단함을 고증하는데 꽤 자세히 설명한 편이다. 이를 이어, 다시 사료 ①를 보자면, 홍로현 내 “大闕基”, 곧 강정동 ‘대궐터’에 있었을 궁실이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제주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제주

56) 법화사는 조선시대 태종 8년(1408) 2월에도 여전히 裨補寺刹이고, 이때만 하더라도 노비 280구를 지니고 있었다(『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2월 정미). 이들 법화사 노비의 대부분은 법화사가 지녔던 寺領地 내의 寺院田을 경영하던 佃戶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에 법화사는 寺領의 지배범위를 표시하는 여러 개의 長生標로 둘러싸인 사령지를 지녔을거니와, 그 범위는 사찰 본체가 자리잡은 오늘날 서귀포시 하월동을 비롯해 주변의 강정동·대포동·법환동 일대까지 미쳤을 것 같다. 그런 만큼,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법화사 경내 라 함은 오늘날에도 법화사 중창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제주도 기념물 제13호 ‘법화사지’(서귀포시 하월동 107-1외 65필지)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중창 이후의 법화사가 지녔을 사령지도 염두에 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 때 법화사의 사령지 범위가 상당한 규모에 달했을 것이라는 논의는 고려시대 때 裨補寺刹의 사령지 소유 실태와 사령지 내 사원전 경영방식을 통해서 보자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강진철(1980),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pp.141~161).

성 외에 궁궐이 제주에 있었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홍로현 관내 ‘대궐기’의 궁실은 몽골 황제 순제가 공민왕 15년(1366) 무렵부터 공민왕 17년(1368) 8월 이전까지 2년 넘게 조영공사를 추진했으나, 마침내 준공치 못한 그의 피난궁전으로 봤다.

물론, 송정규가 홍로현 관내 “大闕基”, 오늘날로 치자면 강정동 ‘대궐터’를 순제의 피난궁전이 들어섰던 곳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성 외에 궁궐이 제주에는 있을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라 하겠다. 그래서 『고려사』에 나오는 순제의 피난궁전을 거론하고, 그 궁실의 조영공사가 홍로현 관내 “大闕基”, 곧 강정동 ‘대궐터’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비정했던 것이다.



〈그림 8〉 강정동 ‘대궐터’ 출토유물(제공 제주문화 유산연구원)



〈그림 9〉 강정동 ‘대궐터’ 출토 원형주좌초석 (제공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송정규의 홍로현 관내 “大闕基” 관련 역사적 고증은 여기가 몽골 황제 순제의 피난궁전 터이며, 그것이 조성된 시기가 14세기 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정동 ‘대궐터’에 시설물이 들어섰던 시기가 14~15세기에 걸친다는 발굴조사 성과와도 맞아 떨어진다. 곧, 강정동 ‘대궐터’ 유적 발굴조사는 건물지 2곳을 비롯해 다수의 주초석 확인, 기와류와 도자기편, 상감분청 등의 유물을 수습하는 성과를 낸 뒤, 유적과 유물의 조합상으로 봐 강정동 ‘대궐터’ 유적의 건물지 축조시기가 14~15세기에 걸친다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다. 이로써 송정규의 역사적 고증 가운데 일부는 발굴조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고 하겠다.



<그림 10> 법화사지 출토 원형주좌초석(제공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조사의 연구 성과로는 원형주좌초석의 수습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형주좌초석은 <그림 7>의 ⑪ 법화사지에서 사용된 초석과 동일하기 때문에 강정동 ‘대궐터’ 유적과 ‘법화사지’의 건물이 동시기에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한편 강정동 ‘대궐터’와 ‘법화사지’는 서로의 거리가 약 3km밖에 안 될 정도로 근접해 있다. 이는 강정동 ‘대궐터’가 고려시대 때 법화사 경내, 혹은 사령지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고려시대 법화사는 몽골에 의해 중창이 주도됐고, 몽골족의 제주 관할과 관련한 주요건물이 들어섰던 곳으로도 이해한다. 그런 만큼, 강정동 ‘대궐터’ 유적의 건물지 경우도 몽골족과 관계를 갖는 시설물이 있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이 점도 역시 송정규가 300여 년 전 홍

로현 관내 “大關基”를 몽골 황제 순제의 피난궁전 터로 보는 역사적 고증에 힘을 보태는 사실이기도 하다. 결국 송정규의 고증은 오늘날에 와 또 하나의 근거를 얻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sup>57)</sup>

「해외문견록」 외에도 강정동 ‘대궐터’ 관련 사서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유사, 혹은 시기가 앞선 기록을 의도적으로 고쳤다고 보인다. 이 가운데 시기가 가장 앞서는 한편, 다른 사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론할 만한 것은 다음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도 원문과 번역문을 다 같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료 ② 왕자묘

대정현의 동쪽 45리에 있다. 궁산의 두 하천 사이에 3기묘의 덧돌이 아직도 남아 있다. 두 모퉁이에는 백작약이 자란다. 가래촌에는 또한 궁궐의 잔존 주초석이 있다. 아마도 탁라왕이 도읍지로 삼은 곳이 아닌가 한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는 산방을 제2도였다고 이른다.<sup>58)</sup>

이 자료는 이현조가 현종 7(1841)~9년(1843) 제주목사를 지낼 때 편찬한 『탐라지초본』에 실린 것이다. 이를 보자면, ‘王子墓’라는 분묘유적 항목에 細註 형태로 두 곳의 유적을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궁산의 두 하천 사이에 자리한 3기묘, 다른 하나는 가래촌 위치 궁궐터의 잔존 주초석이다. 이 가운데 전자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 21번지 등에 자리잡은 3기의 분묘, 곧 현재 기념물 제54

57) 송정규의 경우는 “섬에 오래된 문헌이 없어 공이 옛날의 사실을 수집하고, 풍속을 기록하여 탐라지를 만들고, 또한 탐라지도를 만들어 살펴보기에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行狀」에 드러나듯이[김용태(2011), 앞의 논문, p.310], 제주목사 재직 중 제주 역사문화와 관련해 각종 기록을 수집하는 한편, 현장답사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그는 오늘날의 어느 역사문화연구자 못지않게 고증에 충실했을 것이다. 또한 제주목사였던 만큼, 당시 남아 있었던 제주도내의 자료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접근과 열람이 용이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도 송정규의 논의는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58) 『탐라지초본』, 大靜, 古墳조.

“王子墓[이하 세주 형태]在縣東四十五里 宮山兩川之間 三墓階砌尙存 兩隅有白灼藥加來村裏 又有宮闕遺礎 疑是毛羅王所都處 俗傳山房爲第二都云”

호 ‘하원동 탐라왕자묘’이고, 후자가 강정동 ‘대궐터’를 말한다.



(그림 11) “하원동 탐라왕자묘” 전경(제공 서귀포시청)

이 기록은 강정동 ‘대궐터’ 관련 19세기 전반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 이를 보자면, 주초석이 지표상에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올해의 발굴조사에서도 석축과 돌담 사이에서 다수의 주초석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한편, 하원동 소재의 분묘군, 즉 지금의 기념물 제54호 ‘하원동 탐라왕자묘’가 ‘王子墓’라는 명칭으로 사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1843년 경 편찬의 『탐라지초본』으로부터 비롯했다고 보인다. 이는 1706년 무렵 송정규가 「해외문견록」을 저술하면서 강정동 ‘대궐터’를 세세하게 묘사하면서도 그 주변의 ‘왕자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도 방증되지 않을까 한다.

여태 하원동 소재의 ‘왕자묘’는 강정동 ‘대궐터’의 주변 유적으로 양자를 묶어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편이었다.<sup>59)</sup> 반면, ‘왕자묘’가 누구의 무덤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곧, ‘왕자묘’의 피장자가 몽골황실 왕족 梁王의 이들로 제주에 유배와 태종 4년(1404) 사망한 백백태자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sup>60)</sup> 몽골의 제주지배기부터 조선초기에 걸친 王子 역임자

59) 강정동 ‘대궐터’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올해 처음 행해졌다. 이는 애초 하원동 소재 ‘왕자묘’ 피장자가 몽골의 제주지배기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살았던 제주 남평문씨 조상 가운데 왕자 역임자였다고 보는 제주남평 문씨종친회 바램과 이들의 발굴조사 경비 지원에 힘입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강정동 ‘대궐터’ 유적과 하원동 소재 ‘왕자묘’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한 연구가 비로소 시작되지 않았나 한다(김일우(2015), 앞의 논문).

로 보는 논의도 있는 것이다.<sup>61)</sup> 또한 이들 기존 양자의 논의는 서로 맹점이 있음을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sup>62)</sup> 이로 볼 때, 하원동 분묘군의 피장자 신분에 대한 규명이 현재의 연구성과로서는 힘들고, 제주 지역의 분묘에 대한 더 많은 자료의 축적과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다시 강정동 ‘대궐터’로 돌아와, 발굴조사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도 간간히 언급했지만, 강정동 ‘대궐터’ 유적의 건물지가 14~15세기와 관련되었음을 밝힌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출토의 원형 주좌초석이 ‘법화사지’에서 수습된 원형주좌초석과 동일하기 때문에 두 곳의 건물지가 동시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로써 강정동 ‘대궐터’의 경우도 몽골의 제주지배기 때 몽골과 관련성을 지닌 시설물이 들어섰었던 유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본다. 반면, 강정동 ‘대궐터’는 문헌자료와 이의 논리적 추찰을 통해서 보자면, 어느 곳의 ‘대궐터’처럼 그에 걸맞은 건축물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할 터인데, 발굴조사의 성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강정동 ‘대궐터’의 규모가 송정규의 고증에 따르더라도 “사방 수백 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발굴조사 대상유적이 1,415m<sup>2</sup>(428여 평)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요컨대, 강정동 ‘대궐터’ 유적은 사서기록 및 발굴조사와 주변 유적 간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유기적으로 미루어 보자면, 14세기 후반 몽골이 제주 서남부 지역에 일으켰던 대규모 조영공사와 관련해 역사적 고증을 해 나아가야 할 곳임이 십분 드러났다고 하겠다. 곧, 사료에 의해 뚜렷이 드러나는 몽골황제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조영, 혹은 몽골황실 왕족출신 제주 유배인의 대규모 주택단지조성·주택건설

60) 김태능(1967), 앞의 논문, pp.184~186.

61) 고창석·김동전·강화화(2000), 『제주 하원동 분묘군』,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pp.123~126.

여기서 말하는 왕자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제주 토착세력의 2인자가 지녀 왔었던 호칭이 거니와, 고려시대 들어와서는 국가의 제주관할에도 참여했던 職位의 명칭을 말한다.

62) 김경주·박재현(2012),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pp.67~73.

그동안 하원동 분묘군의 피장자 신분 관련 논의에서 맹점으로 거론된 사실에 대한 설명, 더 나아가 이들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김일우(2015), 앞의 논문, pp.160~163에 걸쳐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이 강정동 ‘대궐터’ 주변 일대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자못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나, 입지 선택의 적절성과 터 닦기 수고로움의 경감을 감안한다면, 강정동 ‘대궐터’는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조영과 몽골황실 왕족출신 제주 유배인의 대규모 주택단지조성·주택건설이 중첩되어 이루어진 유적일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 또한 강정동 ‘대궐터’를 하원동 소재 분묘군, 곧 ‘왕자묘’와도 묶어 이해하는 접근도 취하는 한편, 이들 분묘의 피장자에 대한 논란도 해소해야 할 것 같다.

## 5. 맺음말

홍로현 관내 “大闕基”, 곧 오늘날로 치자면 강정동 ‘대궐터’와 진배없는 곳은 300여 년 전부터 주목받았음이 드러나는 유적이다. 이렇게 된 데는 여기만이 제주의 ‘대궐터’란 지명 가운데 유독 사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곳이라 가능했다. 그리고 사서에서 ‘대궐터’는 “大闕基”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제주에서 역사 유적을 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대궐터’의 한자차용 표기로 첫 용례일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더욱이, 1704년 무렵 제주목사 송정규가 “濟州城” 외에 “宮闕”이라고 칭하는 것은 홍로현 관내의 “大闕基” 밖에 없다고 단언한 뒤, 여기는 1366~1368년에 착공이 추진되었던 몽골 황제 순제의 피난궁전 터로 본다는 논의를 제기했다. 곧, 홍로현 관내 “大闕基”는 오늘날의 강정동 ‘대궐터’를 일컫는다고 봐도 무방함으로, 몽골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제가 제주로 피난코자 2년 넘게 궁전 조영공사를 행했던 곳이 오늘날의 강정동 ‘대궐터’로 봄과 진배없는 것이다. 이 사실은 현직의 제주목사가 제기했던 만큼, 허투루 말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몽골의 제주지배가 80여 년이 지난 1360년대 무렵, 제주사회의 중심지역과 권력의 중심부는 제주의 서남부권, 곧 오늘날 서귀포시 洞 지역의 서쪽에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정동 ‘대궐터’ 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14~15세기에 걸쳐 축조된 건물지가 드러났거니와, 이곳의 수습유물은 강정동 ‘대궐터’가 몽골과 관련성을 지녔음직한 점도 시사해주고 있다.

오늘날의 제주역사·고고학적 연구성과는 300여 년 전 제주목사 송정규가 홍

로현 관내 “大關基”, 곧 오늘날로 치자면 강정동 ‘대궐터’ 유적을 몽골 황제 순제의 피난궁전 터로 보는 견해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강정동 ‘대궐터’ 유적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발굴조사도 2015년 2월에 실시한 대상유적을 축으로 삼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고려시대 법화사 경내, 혹은 寺領地의 범위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순제의 피난궁전 터는 물론이고, 1380년대 명과 고려가 몽골황실 왕족 출신의 제주 유배인을 거주·정착케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대규모 주택단지조성·주택건설도 법화사의 관할영역에서 행해졌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 볼 때, 몽골황제 순제의 제주피난궁전 조영, 혹은 몽골황실 왕족출신 제주 유배인의 대규모 주택단지조성·주택건설이 강정동 ‘대궐터’ 주변 일대에 이뤄졌을 개연성이 자못 높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강정동 ‘대궐터’ 일대는 순제의 제주 피난궁전 조영과 몽골황실 왕족출신 제주 유배인의 대규모 주택단지조성·주택건설이 중첩되어 이루어진 유적일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강정동 ‘대궐터’ 일대의 발굴조사도 기존 발굴지역을 축으로 삼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몽골황제 순제의 제주피난궁전 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이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 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 지역이자, 교류와 만남의 아이콘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新增東國輿地勝覽』, 『正宗實錄』, 『太宗實錄』, 『宣祖實錄』, 『濟州風土錄』, 『南槎錄』, 『耽羅巡歷圖』, 『海外聞見錄』, 『濟州邑誌』, 『耽羅誌草本』, 『元史』

### 2. 연구 저서와 논문

강진철(1980),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강창화(2000), 「제주 법화사지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사연구』 9.

고창석·김동전·강창화(2000), 『제주 하원동 분묘군』,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김용태(2011), 「漂海錄의 전통에서 본 『海外聞見錄』의 위상과 가치」, 『한국한문학연구』 48.

김일우(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_\_\_\_\_ (2007),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濟州島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_\_\_\_\_ (2002), 「고려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한국사연구』 119.

\_\_\_\_\_ (2003),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_\_\_\_\_ (2015), 「제주 江汀洞 ‘대궐터’ 유적의 역사적 성격- 고려시대 몽골의 제주 지배기와 관련하여-」, 『한국사학보』 60.

김태능(1967), 「원순제의 피난궁전지와 백백태자의 묘」, 『제주도』 31.

남원읍 하례리(1999), 『하례마을 가마귀마루』, 하례마을회.

문선희(1978), 『삼별초의 녀』, 제은경출판사.

배숙희(2012), 「元末·明初의 雲南과 古元 後裔의 濟州 移住」, 『동양사학연구』 119.

서귀포시 서흥동(1996), 『서흥로』, 서귀포시 서흥동.

에르테니 바타르(2006), 「원·고려 지배세력 관계의 성격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은숙(2016), 「토곤 테무르 카안의 탐라공전」,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 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문.

이개석(2016), 「몽골의 탐라 지배와 항파두리성」, “제주-몽골 교류 740주년 기념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문.

전영준(2013), 「13~14세기 元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 변화」, 『제주도 연구』 40.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문화예술재단.

岡田英弘(1958), 「元の順帝と耽羅島」, 『アジア文化研究論叢』 1, 國際基督教大學.

蔭木原洋(1998), 「洪武帝期の対外政策考—濟州島に焦点を当てて—」, 『東洋史訪』 4.

### 3. 보고서

김경주·박재현(2012), 『제주 성읍리분묘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서귀포시·제주대학교박물관(1997), 『법화사지』 (제주대학교조사보고 19집).

제주고고학연구소(2011), 「사적 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1992), 『법화사지』 (제주대학교조사보고 10집).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0),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매장문화재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 및현장설명회」 자료집.

제주문화유산연구원(201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문화재 시굴조사간략보고서」.

\_\_\_\_\_ (2015), 『제주강정동 대궐터유적 문화재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시·(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2012),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  
적 종합정비계획』, 제주역사문화진흥원.



E-mail: [ilwoo60@nate.com](mailto:ilwoo60@nate.com)

접수일: 2016년 7월 6일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일: 2016년 7월 30일~ 8월 8일

계재결정일: 2016년 8월 9일